

전북현대 10년만에 우승도전

내일 홈에서 알아인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
이 내일 저녁 7시 UAE 알 이언을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아시아축구
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을
치른다.

전북은 2006년 아시아 챔피언이 된 후
5년 뒤 2011년 11월 다시 한 번 왕좌에
오를 것을 누구도 의심치 않았지만 안
타깝게 우승 트로피를 놓쳤다.

5년전 그 한을 풀기 위해 최강의 전력을
갖춰온 전북은 다시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전북이 만날 알아인은 2003년 챔피언
스리그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
다.

선수단과 팬들은 10년간의 숙원을 올
해 반드시 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선
수단은 팬들의 열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국, 김신욱 등 국내 최고의 공격
진을 선봉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알 아
인의 수비진을 무력시키고 아시아 최강
의 미들파워 라인 레오나르도-이재성-
김보경-로페즈 등 전북이 가진 모든 공

2011년 ACL 결승전 이후 최대 예매율

을 보이며 19일 경기의 참석률을 알리는
신호를 12,000여명 이상이 보내고 있다.

17일 수능 이후 수험생들에게는 할인
혜택도 있다.

2017 대입 수능시험 수험표 지참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E/N석에 한해서
입장할 수 있다.

주장 권순태 선수는 '2011년 ACL결승

에 함께 있지 못해서 나에게는 10년 만
에 찾아온 ACL 결승전이다. 절대 경험
만을 쌓는 경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팬
분들이 아쉬워 하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다. 그 민족 자신이 있다. 반드시 승
리하겠다"며 강한 포부를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체육회, 재능기부 사업 '호응'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문화 조성 및 학교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재능기부 사업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육상 선수들은 고창흥덕초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육상의 기본자세인 각종 스타트 방법 및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기술 등을 전달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흥덕초 학생들은 "평소 배울 수 없었던 달리기 출발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며 "다음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때는 1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재능기부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김민근기자

홍광철 호원대 감독, 국제축구대회 코치 임명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축구부 홍광철 감독이 '2016 BTV-CUP 국제축구대회' 대학선별팀 코치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홍광철 감독은 이달 21일부터 통영에서 20명의 대학선별팀과 함께 훈련을 시작한 뒤 내달 2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016 BTV-CUP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베트남축구협회와 베트남 국영방송 BTV가 주최하는 대회로 한국, 일본, 브라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5개국 8개 팀이 참가한다.

한성대를 졸업한 홍광철 감독은 지난 1997년 대전 시티즌 프로 축구단 창단 멤버로 활약했고, 한수원에서 선수생활을 마쳤다. 이후 2005년부터 호원대 축구부 코치로 활동하다 2년 전 감독으로 발탁됐다.

호원대 축구부는 지난해 제11회 KBSN 1, 2학년 대학축구 대회에서 3위, 2015 카페베네 대학 U리그 7권역 준우승, 대학 축구 리그 왕중왕 전에서 16강에 오르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홍광철 감독은 "대표 팀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 취업을 앞둔 축구부 학생들 지도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엑소,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가요 부문 5관왕

대상포함 아시아 스타상 등

대세그룹 엑소가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sia Artist Awards·AAA)'의 가요 부문 주인공이 됐다.

엑소는 16일 오후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6 AAA'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 6월 발표한 정규 3집 '이그제스트(EXACT)'로 인기를 누린 엑소는 AAA 아시아 스타상, AAA 바이두 스타상, AAA 인기상 등 가요 4개 부문을 석권했다.

멤버 백현이 SBS TV 드라마 '달의연인-보보경심 려'로 남자 배우 부문 AAA 인기상까지 휩쓸며 5관왕이 됐다.

엑소 멤버들은 "팬들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큰 상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올해 정규 2집 '윙스'로 빌보드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수 최고 순위 26위를 차지하며 또 다른 대세그룹이 된 방탄소년단은 2관왕에 올랐다. AAA 베스트 아티스트 가수 부문과 AAA 베스트 아이

콘에 선정됐다.

'블랙비'와 '세븐틴'은 AAA 베스트 스타 가수 부문, '비스'와 'AOA'는 AAA 베스트 세일러브리티를 받았다.

'B.A.P'는 AAA 베스트 엔터테이너에 이 름을 올렸다.

SM의 신인 그룹 'NCT127'과 '블랙핑크'가 AAA 신인상을 받았다.

한동근 '우주소녀', 일본 그룹 '보이즈엔 멘'은 AAA 라이징 스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빙탄소년 단을 기운 방시혁이 AAA 베스트 프로듀서상을 받았다.

힙합듀오 '나이니피' 듀오는 AAA 베스트 조이스상을 수상했다.

'태양의 후예' 등에 참여한 거미는 AAA 베스트 OST상, 신 한류스타 홍치열과 중화권 스타 방대동은 AAA 뉴웨이브상을 받았다.

슈퍼주니어 이특, 배우 이시영 MC 조우 종이 사회를 보는 '2016 AAA'는 머니투데 이방송(MTN), 네이버 V라이브, 중국 바이 두 모바일, 일본 TV아시아 위성으로 생중계됐다.

2016 Asia Artist Award



그룹 엑소 멤버들이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국내 유일 드라마·K팝 통합 시상식이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타뉴스(STARNEWS)가 주최한다. 아시아 아티스

/뉴스스

박태환, 아시아선수권 자유형 200m 결승 진출

박태환(27)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자유형 200m에서 기록에 결승에 진출했다.

박태환은 17일 일본 도쿄 다쓰미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 49초78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전체 24명 가운데 3위에 오른 박태환은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결승은 이날 오후 열린다.

우여곡절 끝에 리우올림픽에 나선 박태환은 전 종목 예선 털赖以라는 초리한 성적을 거두며 체면을 구겼다.

당시 박태환은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 48초6을 기록해 6조 최하위, 48명 가운데 29위에 그쳐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박태환은 지난달 열린 전국체전에서는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리우올림픽 때보다 한층 좋은 기록을 내며 금메달을 따 부활을 일궜다. 박태환은 18일 자유형 400m, 19일 자유형 100m·1500m, 20일 자유형 50m에 출전한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얼굴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